



사람과 돈이 모이는 부자대덕

살기 좋은 대덕발전을 위해 현안이었던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고, 송촌도서관도 지난 5월 착공, 신탄진뉴타운사업, 신탄진프로젝트 등 신탄진 4개동을 중점 개발하는 계획도 추진중에 있다. 이와 함께, 오정동지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오정동 일원 187만㎡로 주거환경 및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오정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적 촉진계획을 마련해 도시균형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 국토해양부의 노후산단을 리모델링하는 국책사업으로 대전산업단지 대화, 읍내동 일대가 선정돼 복합기능을 갖춘 친환경적 단지로 재정비할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1조원이상이 투자되며 새로운 대덕으로 비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7년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된 이후 2년 연속 평생학습도시 평가에서 전국 1위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5명 이상이 모여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학습을 자장면처럼 배달해 드리는 배달강좌제를 도입 배달강사라는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고용창출 모델을 발굴 타 시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나눔의 복지사회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복지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소득자녀의 등하교길에서 아동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아이사랑 안심서비스’와 교육기회에 대한 상대적 괴리감을 해소하고 학원과 연계하여 무료수강을 지원하는 ‘366 행복나눔 울타리’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대덕을 대표 하는 복지서비스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한편, 해피투게더 대덕 건설을 위한 유형 인프라인 도시개발사업과 무형인프라인 평생학습도시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와 더불어 남쪽의 오정동과 북쪽의 신탄진으로 분리된 문화, 경제적 단절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호남선 철도를 전철화하고 도시철도 2호선이 꼭 대덕구를 경유해야 한다. 아울러 대덕구는 연축동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절구형 지형으로 남북간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 대덕의 중앙이라 할 수 있는 연축지구를 개발해 주거와 업무, 교육 문화가 어우러진 신도시를 건설하고 행정타운을 건설한다는 장기적인 복안도 갖고 있다.